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쌓아둔 빨래와 설거지를 처리하고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띄었다. 4월 달력이 걸려있었다. 이 날은 이미 한달이 지난 5월 2일이었다.

날짜가 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엇에 그렇게 골몰했는지 생각에 잠긴다.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 적어도 것처럼 실체와 원인이 온전하고 명확한

착각이라면, 이것 착각으로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아니, 적어도 나만은 그것을 착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개심이 들었다.

그 한 달간 그가 벌인 일은 내 예상밖의 일이었다. 목격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위협을 무릅쓰는 일 따위는 할 여유가 없기에, 그저 숨을 죽인 채 내가 목격한 것이 진실임을 상기하고 또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잊고 싶기도 했으나, 그것은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적어내려갔다.

한달전 나는 퇴근하고 돌아가던중 동네 골목 어귀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전까지 한두번정도 동네를 거닐다가 몇번 마주쳤던 "그"였다. 그러나 워낙 인상이 희미해진 탓일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그러짐. 당시의 기분을 설명하자면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세상과 분리된 듯한 표정, 동공이 풀린 듯, 시선의 방향을 느낄 수 없던

그의 얼굴에서 난 어떤 거대한 어그러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난 부끄럽게도

경험적으로 쌓아온 편견의 지대한 영향에 휘둘려 범죄의 냄새를 맡았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범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내가 고수해 온 개인의 신념에 심히

어긋날 뿐더러, 내 직업 윤리에 있어서도 크나큰 허물이 되는 것이라. 짐짓

지나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나는 굳이 인사를 건넸다. 그를 향한 내 감각이

착각이었길 바라서였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시나 봐요.”

그는 섬뜩하게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대답없이 지은 그의 미소가 경계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 이후였을것이다.

퇴근길에 그를 늘 마주친 것은.

그는 늘 골목어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같은 표정으로 서있었다.

나의 인사가 무시당한 이후부터 나도 아무말없이 그를 지나쳐갔지만 그에대한 경계심은 늘 유지하고있었기에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지나칠수 없게 되었다.

그때문이었을까 집으로 들어가면 묘한 안도감과 함께 또 그를

마주치지않을까하는 두려움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문동의 한 골목, 달동네로 불려도 좋을 만큼 허름한 집들 가운데에 그보다 더 허름한 모습의 2층주택. 가로등 하나 없어 밤이면 온 동네가 어둠에 잠기고 장정 둘이 지나기도 좁은 골목은 각박한 내 인생을 매일같이 환기시키고, 저 어둠은 차라리 내 미래의 어두움을 상징하고 굳건히 버틴 것만 같았다. 그런 비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나에게 집이 안도감을 주게 되는 것은 전혀 예상밖의 일이었다.ㅜ

뉴스에서는 내가 그를 마주쳤던 그 날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범인은 30 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무미건조한 멘트에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는 듯했다.

그의 모습이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안그래도 뉴스를 보며 꺼림칙했던 나는 크게 놀랐으나 금방 안정을 찾았다.
'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안정감도 잠시 다시금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있었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때 나는 얼어붙었다. 그였다.
"....무슨... 일이죠?"
"...레..."
"네...?"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지않았던 또렷한 눈빛으로 내게 소리쳤다.
"벌레!!"
나는 깜짝놀라 뒤로 자빠져버렸다.
"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미친 사람처럼 외쳐대는 그를 보며 나는 그 기괴한 모습에 질려서 혼절할 지경이었다. 위험하다. 극도로 위험하다는 본능만이 남아 나 또한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까!ㅎ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을 지키고 있는 개들이 소란스럽게 짖기 시작했다.
약 20 초 정도였을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나는 뒤늦게 현관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과 힘빠진 다리로 거실을 기어 벗어놓은 옷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112 를 누르는 손가락은 내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여지지않았다
3 번정도 번호를 잘못누르다가 겨우 경찰과 연결이 되었다. 떠들떠들한 말투로 겨우 통화를 이어나갔다.
"미친사람이 집앞에 있어요"
전화를 겨우 마치자 주변의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경관이 묻는 말이 한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완전한 패닉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걸 겨우 정신을 붙잡아 보니 그제서야 재촉하는 경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출동했으니깐 조금만 기다리시면 경찰관들 도착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예의 그 미친 사람은 이미 자리를 떠났는지 현관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30 대 남성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퇴근길마다 히죽 웃는 그를 마주한다.
그가 잡히지않은것은 당연하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좀 특별했다.
정신지체 2 급으로 공문서에는 등록이 되어있으며 어머니와 함께살고있다고 나중에 경찰에게 들었다.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던 그의 어머니는 어느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어 다시는 일어날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로 이해한 그는 평소처럼 동네를 돌아다니고 냉장고에서 식사를 꺼내먹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무신지"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동네사람을 찾았다. 한번 인사를 건넌 바로 나였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가족이었다.

그일이 있은 후 나는 다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다행히 시에서 온 공무원이 그를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들은게 위안이 되었지만. 과연 그 공무원은 얼마나 오래 그를 케어해줄수 있을까? 반대로 그가 없어지는 날은 나는 또다른 두려움에 싸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